농림축산식품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수립 상황실 조기운영…6월1일부터 가동

농림축산식품부는 올여름 잦은 국지성 집중호우와 서해안 지역에 대형태풍 상륙이 예상된다는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라 농업현장에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예상치 못한 재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요청했다.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에 따르면 먼저, 이상고온 현상 등 빨라진 여름 기상상황을 감안하여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전년보다 10일 앞당겨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은 농업정책국장 총괄하에 5개팀(초동대응, 재해복구, 식량 · 원예, 축산, 수리시설)으로 구성되며, 기상특보 발령시 각 실 · 국 및 지자체, 유관기관 · 단체도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상황종료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태풍 ·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시설을 일제히 점검하여 재해예방에 차질 없도록 조치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스스로가 재해대응이 가능하도록 농촌지도기관과 시 · 군, 읍 · 면을 통해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한편, 여름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가축 · 시설 관리요령 등 리플릿 2종을 제작배포하고, 재해대응 요령을 SMS문자로 전송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농업인 스스로도 재해에 사전대비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사전점검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서류미비 등 통관지연 해소위한 찾아가는 검역교육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지역본부장 임정빈, 이하 인천공항검역본부)는 소규모로 수입되는 시험연구용 물질의 검역서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통관지연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검역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험연구용 물질은 시험연구용 가공단백질(항체 등) 및 가축전염병 병원체(통상 5kg 이하)

최근, 고가이면서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시험연구용 물질은 국내 연구 활성화로 최근 몇 년간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수입 경험이 적은 대학교 연구실이나 소규모 연구기관 담당자들은 수입 시 필요한 검역요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서류의 사후 보완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수입되는 시험연구용 물질의 절반정도(2016년 기준 2,100여건)가 검역신청 준비를 위하여 3일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길게는 7일까지 소요되면서 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학교 및 연구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검역관련 교육 ·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 시험연구용 물질 수입실적 : ('14년) 2,639건(250 기관) → ('15년) 3,628건(280 기관) → ('16년) 4,032건(292 기관)

이에 인천공항검역본부에서는 매월 1-2회씩 대학교 및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검역신청방법, 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해 교육하고,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찾아가는 검역교육을 통해 수입되는 시험연구용 물질이 연구자에게 신속히 전달됨으로써 통관기간이 길어져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연구의 질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검역본부는 국민들이 검역에 의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태국산 계란 수입 허용 국내 계란가격 안정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태국산 식용란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마치고, 수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태국 정부와의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태국산 식용란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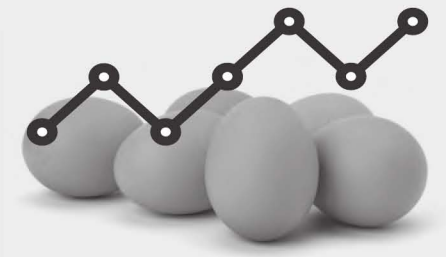
* 식용란 수입허용 국가(7개국) :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태국

이번 수입위생요건 협의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태국산 식용란은 태국 정부로부터 GAP나 HACCP 등의 위생관리 인증을 받은 생산 농장과 제조업체(작업장)에서만 가능하다.

* 산란계 농장은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제조업체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또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또한 살모넬라 및 잔류물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 · 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식용란은 식약처의 축산물 위생 · 안전에 대한 위생평가와 농식품부의 가축질병 검역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 모두 적합한 경우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태국산 식용란 수입 결정이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입물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검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아시아 가축유전자원 전문가 양성 국제훈련 실시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일원에서 아시아 재래가축의 유전적 특성평가를 위한 '가축유전자원 전문가 국제훈련'을 열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FAO), 국제축산연구소(ILRI)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이하 AFACI 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며, 11회원나라 12명이 참가한다.

* 참여 AFACI 회원 11나라 :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네팔,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훈련은 △분자생물학을 이용한 유전적 특성 평가의 필요성 △국제적인 동향(FAO) △실제협력사례(ILRI) △앞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이뤄진다.

특히, 실습에서는 회원국이 수집한 가축유전자원 시료를 가지고 직접 유전적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 등을 진행한다. 전 세계 가축유전자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방법으로 분석해야 하고 각 회원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과 다른 나라와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구명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FAO는 그간 분자생물학적 특성평가 지침서를 발간해 회원나라들에 정보를 제공했으나, 기술적 · 경제적 사정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한정돼 왔다. 농촌진흥청 오성종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으로 인류의 식량안보 해결은 미지의 유전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발전된 생명공학기술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농식품 수출경영체 협의회' 출범식 수출경영체간 소통 · 협력 강화 격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6월 2일 농진청 본관 오디토리움에서 300여명의 수출경영체가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 수출경영체 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우리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다짐했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 앞서 300여개 수출경영체들은 식량, 채소, 과수, 화훼, 특용, 가공식품, 축산물 등 7개 분과별 모임을 갖고 문수호 수곡덕천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 등 생산현장의 오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분야별 기술정보를 교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결집해 전문수출경영체로 도약하기 위한 각종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또한 협의회는 농업경영체의 수출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회원 간 농식품 수출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류, 교육행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인적·물적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수출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수출현장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건의, 연구과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농진청은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출농업포럼과 온라인 밴드, 수출현장 컨설팅 운영 등으로 정보교류와 협력관계망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2회 축산·수의분야 취업&창업 박람회 참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종, 이하 위생방역본부)는 5월 25일~26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제2회 축산·수의분야 취업&창업 박람회'에 참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축산·수의분야 기업과 취업 희망자간 정보교류를 통하여 기업 인재채용 어려움 해소 및 청년층 취업 촉진을 위해 마련됐고, 위생방역본부에서는 채용상담관, 축산홍보관(방역기자재 전시), 취업선배 맨토링관을 운영했다.

위생방역본부는 박람회 기간 중 237명의 채용상담을 통해 금번 신규 채용시 우수한 인재의 참여를 기대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의·축산 관련 대학을 방문하여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 채용인원 : 34명(일반직 2명, 방역직 10명, 위생직 20명, 검역직 2명)

축산물품질평가원

제7회 축산물품질평가대회 시상식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 건국대 '대상'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5월 25일 제2회 축산 · 수의 분야 취업 · 창업 박람회가 개최된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의 시상식을 진행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는 축산 전공자(대학생)를 대상으로 한 달간의 축산물 등급판정 사전 교육 후 현장 실기평가와 이론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2점 등 총 22점을 시상하는 대회이다.

올해는 전국 축산 관련 22개 대학 93개 팀 186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종 수상자가 선정됐다. 최종 평가 결과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 돼지 부문에서 각각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황지원 · 이승희 학생, 건국대학교 윤영조 · 유현정 학생이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수여하는 최우수상에는 강원대학교 이기용 · 신현우 학생과 삼육대학교 도시선 · 홍수경 학생이 선정됐으며 이밖에도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등 총 22점이 시상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백종호 원장은 "여섯 번의 축산물품질평가대회에서 능력을 발휘한 학생들이 축평원 가족이 되는 등 대회를 통해 학교와의 거리가 지속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 운반 · 보관업 HACCP분야 실무자 간담회…인증 활성화 논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 인증원)에서 축산물 운반 · 보관업 현장 실무자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5월 31일 대전지원에서 '축산물 운반 · 보관업체 HACCP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HACCP인증원, 운반업 및 보관업 관련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유통단계 HACCP 인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HACCP 인증률 제고를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17년 식품안전정책 추진계획 및 현시점 운반 · 보관업체 HACCP 인증현황을 설명하고, HACCP을 바로 적용 할 수 있도록 업체별 맞춤형 기술지도 및 실질적인 혜택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축산환경관리원

축산 · 수의분야 취업 · 창업 박람회 참석 일자리창출에 적극 앞장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제2회 축산 · 수의분야 취업 · 창업 박람회에 참석해 '축산홍보관(가축분뇨 자원순환)'과 '채용상담관'을 운영하여 축산 · 수의 분야 취업 희망자에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앞장섰다.

장원경 원장은 "위기에 처해있는 축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에 박람회에 참여, 축산업 전반에 걸친 일자리창출 확대에 관리원이 노력하겠다"며 상담직원들을 격려했다.